



|   |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국토교통부 | <b>보 도 자 료</b>     |  | <br>대한민국 대전환<br>한국판뉴딜 |
|   | 배포일시               | 2021. 12. 20.(월)<br>/ 총 5매(본문3, 참고2)   |  |
| 담당 부서   | 지적재조사기획단<br>사업총괄과  | 담당 자   | • 과장 유상철, 사무관 김일<br>• ☎ (044) 201-4655, 4657   |
| 담당 부서   | 한국국토정보공사<br>지적재조사처 | 담당 자   | • 처장 이주화, 팀장 정인영<br>• ☎ (063) 713-1440, 1442   |
| 보 도 일 시   |                    | 2021년 12월 21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, 방송, 인터넷은 12. 20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 |

## 지적재조사 민간업체 참여, 일자리 창출 역대 최고치 전망 - '22년 지적재조사대행자 공모 결과 102개 민간업체 선정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참여할 지적재조사대행자를 공개모집한 결과, 최종 102개의 민간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- 이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가장 많은 민간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결과로써,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도입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제도의 정책효과로 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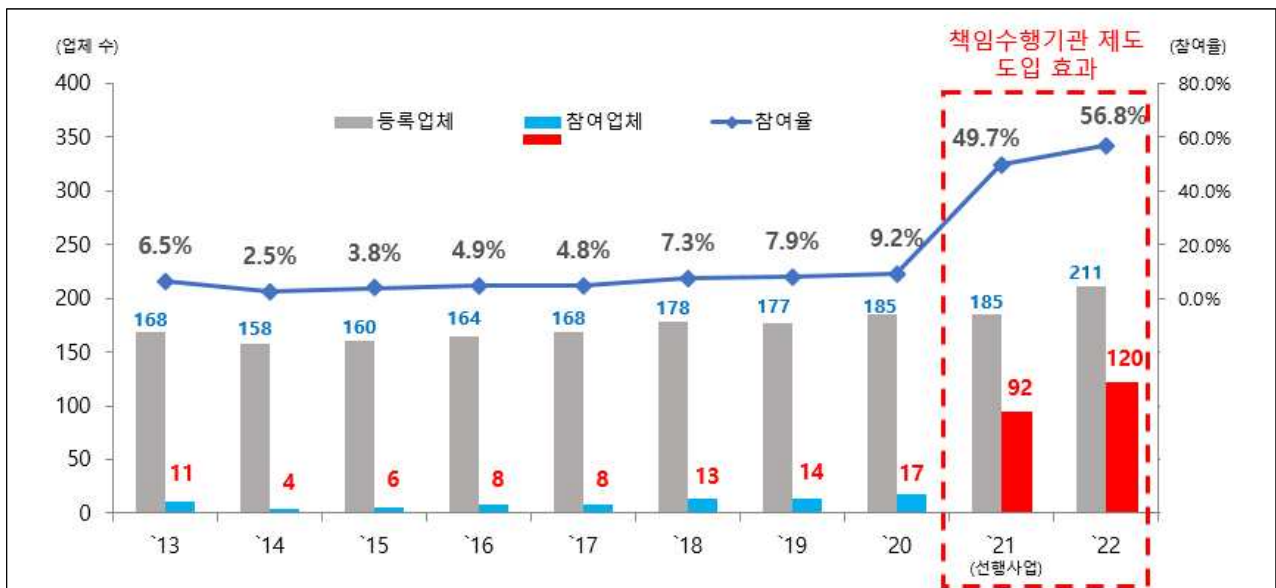
※ '지적재조사'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

-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(이하 'LX공사')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체제임에 따라, 소규모 민간업체는 기술력의 한계 등으로 사업 전공정에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.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공기관인 LX공사를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,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**상생협력방안\***을 마련한 바 있다.

\* 일필지측량, 면적측정 등 단순 측량업무는 민간업체에서 전담하고, 경계조정·협의, 경계확정 등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업무는 준정부기관인 LX공사에서 전담

- 그 결과, 전국 211개 지적측량 등록업체 중 120개(57%)의 업체가 2022년 사업에 참여 신청하여 최종 102개의 업체가 선정되었는데, 이는 매년 평균 10개의 업체가 참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.



- 아울러, 민간대행자의 지적재조사사업 참여인력은 매년 100명 수준이었으나, 2022년 사업에는 861명이 참여함에 따라 약 761명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LX공사는 민간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측량SW 지원\*, 기술공유, 교육지원 등 역량 강화 및 지원방안을 전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.

\* 약 32억원 상당(153개 팀×팀당 3copy 지원×1copy당 약 700만원)

-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업무영역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사업지구별 업무수행기간(2년→1년)도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  
-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“코로나-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책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업체 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최고 실적으로 달성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정책효과”라며, “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, 지속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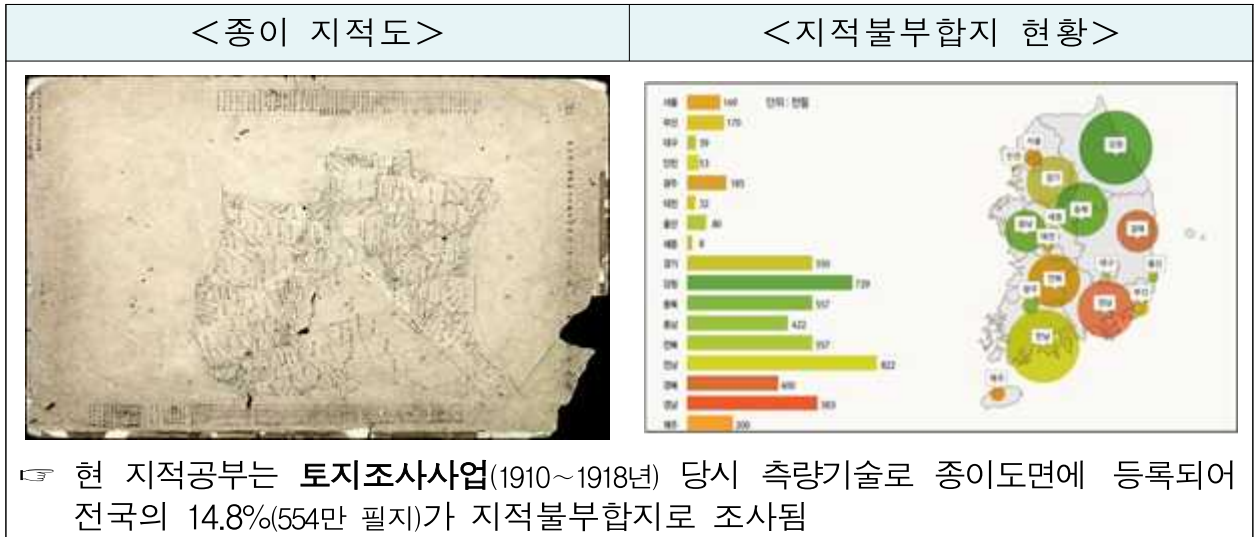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김일 사무관(☎ 044-201-465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참고 1

## 지적재조사 사업개요

- (추진배경) 토지경계를 등록한 종이 지적도면의 훼손·마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\*가 발생하여 경계분쟁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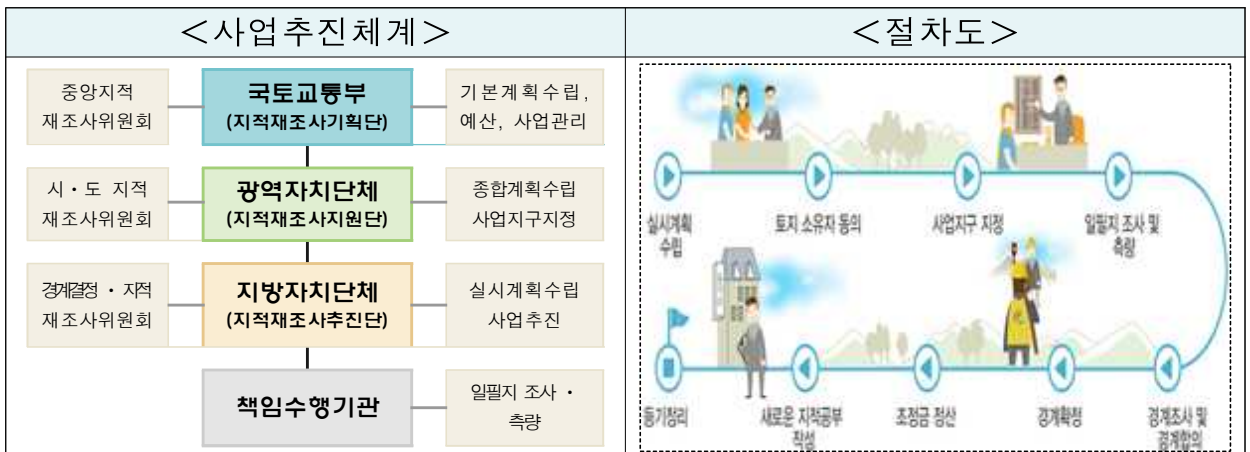
\* 지적공부상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장경계가 불일치한 토지



- (사업내용)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

| 사업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기간                | 총사업비                | 근거법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554만 필지<br>(전국 3,743만 필지의 14.8%) | '12 ~ '30<br>(19년간) | 1조3천억원<br>('12년 예타) |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<br>('11. 9. 16. 제정) |

- (추진체계 및 절차) 국토부(기본계획 수립, 사업관리), 시·도(지구 지정), 시·군·구(경계확정, 조정금산정), 책임수행기관(일필지조사 및 측량)



□ **상생·협력체계 마련**

- (지적재조사측량 분담) 사업지구별 지적재조사 수행자 업무공정 중 책임수행기관부분과 민간부분을 구분하여 분담업무 수행
  -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일필지측량과 면적측정 부분을 민간업체 (35~40%)에서 수행, 나머지 공정은 책임수행기관(60~65%) 전담 수행

|        |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지구계측량  | 일필지측량 | 면적측정 및 계산 | 토지현황 조사서 작성 | 경계조정·협의 | 확정경계점 설치 | 경계측량   | 지정·확정·작성 | 지상경계점 등 등록부 작성 | 이의신청 및 성과물 작성 |
| 책임수행기관 | 민간업체  |           |             | 책임수행기관  | 민간업체     | 책임수행기관 | 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
□ **책임수행기관 공적역할 확대**

- (전담팀 운영) 책임수행기관은 지역본부 단위에 지적재조사 전담팀을 구성하고, 지적재조사 경계협의·조정, 사업관리 등에 집중 투입
- (사업지원체계 마련) 책임수행기관은 사업관리부서와 별도로 행정지원반, 기술자문단 등을 설치하여 전문적 지원체계 구축
  - 전문기술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
□ **안정적 사업추진 지원**

- (효율적 인력 운영) 일반 지적측량업무 수요가 적은 매년 1~3월에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지적재조사측량 착수·수행
- (전문성 확보) 지적재조사 공정 중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함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및 민간업체 상호 전문성이 확보되어 공기단축 기대
  - 책임수행기관이 지자체에 최종 성과물을 납품함에 따라 사업지구에 대한 총괄 사업관리 등으로 사업관리 내실화